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고르넬리오스 백인대장 순교자

십자가 현양 축일 전 주일 / 성모 탄생 축일
제3조, 조과복음1[조과에서 십자가 현양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3조 부활 찬양송 / 81.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제3조 부활 찬양송 / 81. A 213

. 성모 탄생 축일 찬양송 / 186. B 206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B 207

. 사도경: 갈라디아 6,11-18 / 190. 봉독서 303

. 복음경: 요한 3,13-17 / 190. B 210

. 성모 탄생 축일 성모송 / 187. B 208

. 성모 탄생 축일 영성체송(8월 15일) / 187. B19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고르넬리오스 백인대장 순교자

우리 교회에서 9월 13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고르넬리오스 백인대장에 대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 시쯤 주님의 천사가 그의 집에 들어가 “고르넬리오! ...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을 받아들이시고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사도행전 10:3~4)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르넬리오스 백인대장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세례도 받지 않았

지만 기도와 자선 행위를 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 고 계시나요?

성 사도 바울로는 우리들에게 깨끗한 양심으로 기도하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고, 자선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보완하고 사랑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

보통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힘겹게 여겨질 정도로 하루하루가 시험받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무엇이 이 시험받는 생활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번번이 주님 향한 나의 결단이 무너지고 의심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신앙의 선조들을 볼 때,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분들의 비결은 한결같이 유혹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올곧게 가져야 할 신앙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위대한 수도자, 안토니오스 성인은 수도 생활에서 사탄의 수많은 유혹을 견뎌내고 성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부모님이 물려준 엄청난 재산을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마태오 19,21)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처분하고 사막에 들어가 혹독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님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려는 성인을 그냥 놔두지 않았단 말이죠. 우선 성인의 과거부터 떠올리게 하며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풍족했던 재산과 안락함, 사람들과 즐거웠던 생활, 권력과 명예에 대한 아쉬움, 편안하고 느긋했던 휴식, 반면에 수도 생활의 엄격함과 힘겨운 노동의 고통을 떠오르게 하면서 하느님을 따르

는 생활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물론 안토니오스 성인은 이렇게 집요하게 달려드는 유혹을 쉴 새 없는 기도로 극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주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케 하고, 하느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불만투성이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좇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요한1서 2,15-16)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능적인 욕구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욕구를 참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잘못 사용할 때, 끊임 없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이 신앙생활을 망쳐놓습니다. 물질의 탐욕은 믿음을 의심케 하고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물질은 필요를 채워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하지만 죄와 죽음과 유혹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투쟁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 3면으로 계속

우리의 수호천사: 에비아 섬의 야고보 성인(1920-1991)을 만나다

요르고 파파자호스 박사(그리스 아테네대 의과대학의 심장내과 교수)의 증언

야고보 신부는 심장에 있는 문체 때문에 아테네의 국립병원에 입원하였다. 처음 성인을 본 요르고 박사가 받은 인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인은 나를 보자마자 아래와 같이 말하였는데, 이 말에 내 머리칼은 온통 곤두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수호천사가 당신 뒤에 서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으며, 지금 저는 당신의 수호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수호천사가 당신에게서 떠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성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수호천사는 당신이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함께 있어왔습니다. 세례를 받은 날부터 수호천사는 당신 곁에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을 손에 담아 가지고 있으면서 종말의 심판 날까지 그것을 간직해줄 이가 바로 수호천사입니다. 당신을 마지막 심판으로 인도하는 동안, 살아 생전에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악마들은 악담을 퍼부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악마들은 수호천사더러, ‘이 사람은 이런 나쁜 행동과 저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호천사는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런 선한 행동과 저런 착한 행실을 보였었노라고 응대하면서 당신의 영혼을 지켜줄 것입니다. 수호천사는 당신의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당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하십시오. 언제나 수호천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는 지금 수호천사가 당신 곁에 가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나만을 지켜주는 개인적인 수호천사가 바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정교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주님 안에

서 찾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소 식

대교구

■ 십자가 현양 축일 안내

9월 14일(토요일)은 정교회의 대축일 중 하나인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림으로써 십자가의 힘을 받고 영적 생활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일 성찬예배에 참여합시다. 이날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성 대 금요일과 같은 엄격한 금식을 실천합니다.

■ 추석 명절 추도식

9월 13일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선조들을 위한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신자들은 풀리바를 준비하셔서 선조들을 위한 추도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추석을 맞이하여 용미리 교회 묘지의 벌초 작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교회 묘지 관리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묘지 관리비는 100,000원입니다.

【우리는행 077-041887-01-103 / 예금주 :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추석 명절 성찬예배, 추도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13일(금) 추석 당일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오전 9시 30분 에 성찬예배에 이어서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 성찬예배 후 고 보리스 문이춘 신부님과 마리아 사모님의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정리 정돈 봉사 활동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이하여, 9월 28일(토) 장년회와 신데즈모스가 수도원의 외부와 내부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9월 13일(금) ▷ 추석 명절 추도식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월 14일(토) ▷ 십자가 현양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